

# 전주 팔복동 문화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

## 산업단지 내 폐공장부지 지역예술인들 작업·전시·공연 공간인 문화예술공장 조성키로

낙후된 산업단지 중심의 전주시 팔복동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특히 팔복동 철길 주변은 팔복동 철길 명소화사업을 통한 문화재생으로 점차 생동감이 넘치는 마을로 거듭나,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인근지역 주민들이 풍성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전주 제1산업단지 내 폐공장부지를 활용한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등 철길 명소화사업을 통해 팔복동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20여 년간 닫혀있던 산업단지 내 폐산업시설인 쏘렉스 부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지역예술인들의 작업·전시·공연 공간인 팔복문화예술공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추진단(총괄기획 황순우)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쏘렉스공장에서 지역예술인과 산단 기업인, 지역민 등을 초청해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팔복예술공장 첫 번째 공유데이'를 도 연다.

이를 통해 시는 낙후된 산업단지 중심의 팔복동이 전주의 새로운 문화에

술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팔복동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축 연결과 보행권 확보로 숲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철길 주변을 정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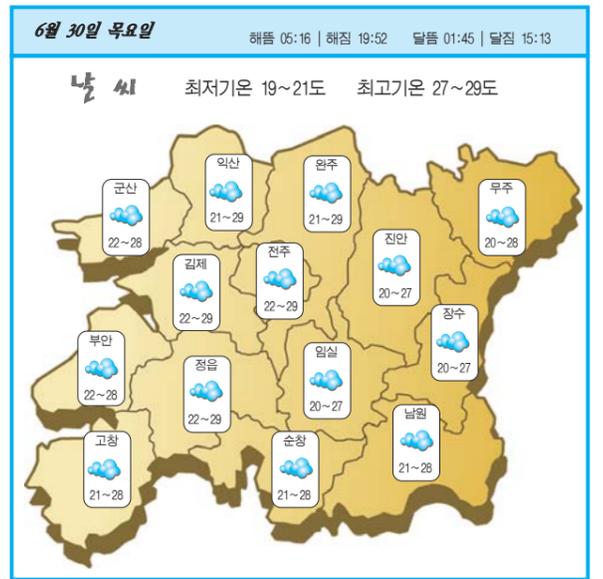
시는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 북부권을 생동과 문화가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옛 동산동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전주시역 공예예술인들을 위한 전용연습공간을 조성했다.

공연장 대관료 부담과 전문 연습 공간 부족 등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260㎡ 규모로, 대연습실 2개소와 중연습실 2개소, 세미나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팔복동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그간 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져왔다"며 "팔복동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점차 바뀌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 출범... 활동 본격화

## 유관기관·학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아동 권리 보호 등 사업 펼쳐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동권리인식도 및 아동친화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조봉업 전주시장과 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 아동관련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29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조봉업 전주시장과 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 아동관련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년 등 총 2854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친화도평가는 3점 만점에 평균 2.23점으로, 전주시 아동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놀이와 여가 2.12점 ▲안전과 보호 2.33점 ▲건강과 위생 2.28점 ▲교육 2.53점 ▲나의 사생활 2.70점으로 안전·보호 분야에서 가장 아동친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아동친화도평가와 아동권리인식도조사는 관내 아동의 권리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전주시 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나머지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8월에 있는 아동최종보고회 때 나올 예정이다.

시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TF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의 안전한 생활 보장,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의무사항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정광운 교수 개발 광학필름 학계 주목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사진)가 공대 교본자·나노공학과가 다양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고 원격제어까지 가능한 새로운 광학필름을 개발해 세계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분자의 나선형 구조 배열을 이용해 색깔 조절이 가능한 신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소재는 원격 조절이 가능한 우수성과 광학 효율 등을 학계로부터 인정받으며 소재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1.805) 6월 27일자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이 기술은 앞으로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이나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페인트, 그리고 군사용 위장 보호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색깔 변화가 가능한 반응성 카이랄 염료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액정에 이 카이랄 염료를 특정 농도로 첨가하면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필름을 만들 수 있고, 온도와 전기장을 가하면 원하는 색깔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 소재를 이용하면 자외선 및 가시광선의 투과 또는 반사를 자유롭게 제어하여 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민형기자

## 전북대, 日 명문 국립대 나고야대학교 교류 합의

전북대학교가 일본 명문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나고야대학교와 연구와 학생 교류 등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전북대 관계자들은 29일 나고야대학교를 방문해 마츠오 총장 등 이 대학 주요 보직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공동연구와 학생 등 인적 교류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 나고야대학은 1871년 설립된 대학으로 물리학 및 화학분야에서 지금까지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노벨상의 산실'로 유명하다. 전북대 역시 화학과에서 세계적인 저널인 네이처에 6번이나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배출했고, 화학공학과 역시 전국 최고 학과로 평가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대학 간 긴밀한 교류가 세계적 연구 성과로 창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양 대학은 연구 인력뿐 아니라 학생도 교환해 양 대학에서 모두 연구나 학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북대가 외국 자매 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매년 운영되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에도 초청해 한국 문화의 참맛과 멋을 전파할 예정이다.

/고민형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